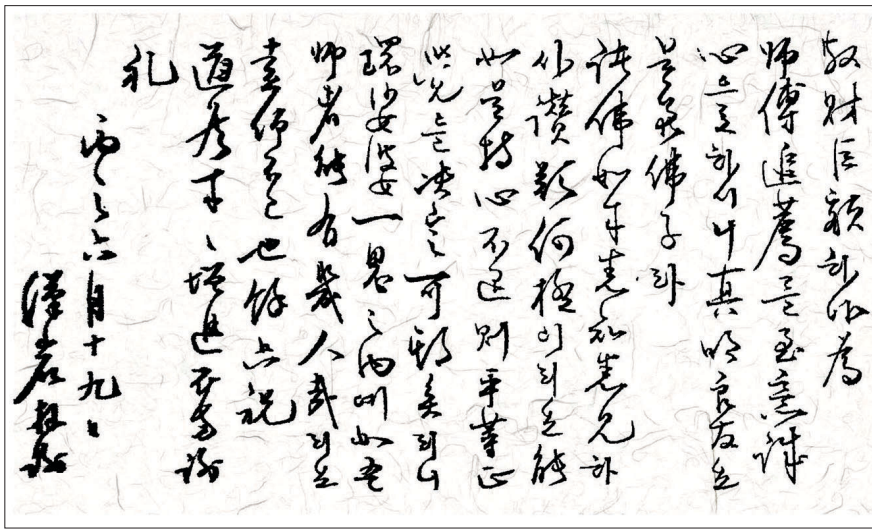




한암(漢岩) 선사(禪師)의 편지 (3)

절친한 도반에게도 '배사' 인사말 써

拜謝



석주 스님에게 보낸 답서 후반부

석주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편지를 받은 지 몇 일이 지났습니다.

법제가 항상 만강(萬康)하시기를 빌고 또 받습니다. 병승(病僧, 謙稱)으로 한암선사(韓岩) 자신을 가리키는 그럭저럭 지냅니다.

스님이 (은사스님 천도기도를 해 달라고) 보낸 돈 50원은 잘 받았습니니다. 즉시 11일부터 날마다 한 번씩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축원했으며, 17일 날에 회향시식을 하고 대중공양을 했습니다.

이 말엽 오탁약세(五濁惡世)에도 스승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가 없지는 않지만, 스님은 이와 같이 거액을 들여 스승(남전스님)의 천도를 지극 성심으로 하시니, 참으로 밝고 어진 벗이요, 선불자(善佛子)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여래가 다 알고 다 보시니, 어찌 말로 다 찬탄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道에서) 물려서지 않는다면 결정코 평등정각(平等正覺)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 안에서 우리 석주스님과 같은 이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멀리서 우러러 마지않습니다. 오로지 법체가 내내 증진(增進)하기를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합니다.

병자(1936년) 6월 19일 한암 배사(拜謝)

이 편지는 한암선사께서 서울 칠보사 석주(昔珠, 印積) 스님에게 답한 편지로, 1936년 병자년(丙子年) 음력 6월 19일에 보낸 것이다.

석주스님의 은사는 근대 선승인 남전(南泉, 1868-1936) 스님이다. 남전스님은 선학원을 창건한 주역으로 일찍이 해인사 주지도 역임(1904년)한 분이다. 보기 드문 선필(禪筆)로 명성이 자자했는데,



윤창화(도사출판 민족사 대표)

남아 있는 글씨는 몇 점 되지 않는다. 1936년 4월 28일 서울 선학원에서 입학했다.

석주스님은 은사스님이 입적하자 왕생극락을 위하여 한암선사께 돈 50원을 보내 천도기도와 함께 상원사 대중들에게 공양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암선사는 "돈은 잘 받았고 그 즉시 11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한 차례씩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축원했으며, 시식(施食), 회향을 한 뒤 대중공양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암선사는 석주스님에게 "이 사바세계에 우리 석주스님과 같은 이가 능히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 하여 은사스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孝誠)을 칭찬하고 있다. 모든 부처님과 여래가 다 알고 다 보시니 장대 반드시 평등정각(平等正覺)을 이룰 것이라고 수기(授記)하고 있다.

당시 돈 50원이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거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꽤 큰 금액이었던 것 같다. 1930년대 논 한마지기가 50원 정도였고, 보통학교 교사 한달 월급이 50원 이었다고 한다. 오늘날 경제 개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돈이 귀한 당시, 산사(山寺)에서는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는 스승에 대한 석주스님의 정성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다.

석주스님은 범어사 출신으로 서울 칠보사 조실로 계셨다. 한암선사의 애제자(愛弟子) 탄허스님과는 절친한 도반이었다. 말하자면 제자의 도반에게 답하는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한암 배사(拜謝, 절하고 올림)'라는 인사말을 쓰고 있다.

“불교중흥, 불교 인재 양성은 내 인생의 마지막 발원”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본각선교원 원장)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 원장·72)는 '불교중흥'과 '거사불교활성화'를 노후의 원력으로 세운 원로 법학자다. 그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멤버로 활약하며 불교의 청년화·지성화에 기여해왔다.

정의감이 넘치는 성격의 고 교수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에 맞서 동아방송 필화사건에 참여, 투옥까지 경험했다. 이후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경기대학교 교수가 돼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치면서 국사찾기협의회 3대 회장,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 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적인 국가 세우기에 주력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기 마련인데, 고 교수는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기자의 이러한 의문에 고 교수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과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 지금 여기 사는 게 중요하다. 부처님은 무분별의 삶을 강조했다. 나도 매 순간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고준환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불사에 전념하길 발원하고, 2009년 정년퇴임 후 사재를 털어 일반인들을 위한 불교 학교인 '본각선교원(本覺禪敎院)'을 세워 불교중흥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 청년·대중화 운동 참여

고준환 교수는 경기 화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교적 가풍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 친구와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독교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에 대한 공금증이 많았지만, 목사는 그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던 의구심 많은 소년이었다.

유달리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민족종교 등 여러 종교를 공부했다.

대학 1학년 시절, 고 교수는 청담 스님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법문을 듣고 감화돼 불교에 귀의했고, 서울대 법과대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법회화가 등장하고 초대 대불련 회장을 역임한 신호철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불교가 청년화, 대중화, 지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활약을 했던 흥도 스님(일명 방울 스님)을 찾아가 의논한 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고준환 교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선지식은 탄허 스님이었다. 고 교수는 청봉사, 대원암, 학하리 등에서 탄허 스님을 뵈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서울 청봉사에

스님이 주석 할 때에는 화엄경·장자 강의를 들었다. 그 때에는 법법회 동기인 박준수, 전창열, 명호근, 김문웅, 김준우 등과 함께 저녁마다 법회에 참석해 탄허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환희심을 느꼈다.

"그 시절에 스님이 불교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신 것, 노장과 유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특

서울 법대 시절 청담·탄허·흥도 스님 영향 서울대 법법회 참여...대불련 창립멤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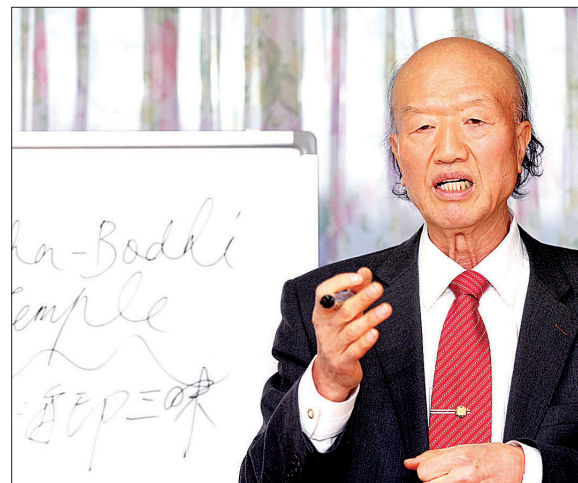
동아일보 기자시절 군사독재에 맞서기도 한국교불련 초대회장으로 불교지성화 기여

국사찾기·민주통일운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 민족의 뿌리 정립 위한 저서 20여권 출간

2011년 본각선교원 열고 불교대중화 발원 불자마을 세우기 위해 철원에 토지 마련

히 장자 소요유라든가,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 화엄경의 사사무에 중중무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탄허 스님은 1975년 화엄경을 번역해 <신화엄경합론>을 출간했다. 고 교수는 스님에게 <신화엄경합론> 한 질을 받았다. 탄허 스님은 고 교수에게 '군자유삼락이왕천



고준환 교수는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하고 응용불교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하불여존언(君子有三樂而王天下不與存焉)이라는 글을 함께 내려주었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천하에서 왕이 되는 것 따위는 그 세 가지 즐거움에 없다. '세 가지 즐거움(三樂)'의 첫째는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無故)한 것이며, 둘째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며,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저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자와 이 유육을 집안의 가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에는 심외무불(心外無佛)이라고 스님이 쓰신 액자도 보관하고 있어요. 스님은 사람들에게 책을 잘 주지 않았어요. 저를 주신 것이 제가 학자의 가능성이 있고, 저의 미래를 내다보시고서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평소 스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평생 학생부문의 체질이고, 학문적인 것을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탄허 스님의 수준에서는 명칭구리 수준이지만."

그칠 줄 모르는 나라사랑·불교사랑

대학 졸업 후 고준환 교수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10년간 언론인으로 생활했다. 평소 민족주의, 민주적인 것이 나라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오던 그는 투옥까지 경험했다.

"당시는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글을 쓰지 않고 던져주는 것만을 갖고 기사를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기사도 역사의 기록이라는 입장에서 그러지 않고 취재를 해서 썼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국회의원 79명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빌미로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신직수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에 보도해서 입건 구속됐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있다가 미결수로 나왔어요. 제가 그 무죄를 입증하는 데 8년이나 걸렸어요. 이런 이력이 있어서 해직이 되고, 언론투쟁을 할 때에 보니 기독교, 천주교 등은 사회봉사도 하고 독재정권과 맞서고 있는 활동이 많았어요. 그러나 불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좌천돼 동아방송 PD를 맡고 있던 고 교수는 법정 스님을 초대해 방송하는 등 노력했다.

"일부러 법정 스님을 인터뷰해서 제가 자주 봐옵습니



본각선교원에서 수업을 듣고있는 불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습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흙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인 사단법인인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예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